

其二 ① 總高(地上高) 一七〇cm ② 板石高 一七〇cm 幅 六〇cm
 ③ 像高 一〇五cm 肩幅 四〇cm

四、神將像

石造如來坐像의 右側(西便)에 隣接한 長方形의 板石에 浮刻한 것인데 板石 上部가 破損되어 圓形의 頭光 結髮部分、耳朶部分이 若干 보일뿐 其外는 破失되었다. 兩肢를 덮은 戎服의 勁健한 옷주름와 옷끈의 表現, 身部에서 나부끼는 天衣의 曲線, 岩盤座의 兩脚의 姿態等 모두 優作에 두어야 할 彫法이다. 造像樣式으로 보아 이 神將像은 四天王像으로 推定하여 불지도 하나 破損이 甚한 關係로 그 眞假를 모르겠다.

- ① 總高(地上高) 一九〇cm ② 板石高 一九〇cm 幅 六〇cm
 ③ 像高(頭光包含) 一二五cm 肩幅 四〇cm

五、石造佛坐像

前記 石像以外에 石造佛坐像 二軀가 現存하는 바 모두 頭部가 破失된 座體만이 殘存하는 것이다. 其一은 通肩衣에 衣紋은 胸前에서 U字形을 하고 다시 流麗한 圓弧線을 그리며 下部로 주름진다. 兩手가 破失되어 手印이 明確하지 않으나 推測컨대 結跏趺座한 正面像인 것 같다. 其二는 破損이 더욱 甚하다 겨우 左側 耳朶 一部와 頸部 三道의 線刻 一部가 남았고 衣紋 一部가 남았을뿐 手印은 未詳하며 結跏趺座한 座體만이 殘存하고 있다.

- ① 其一 高 九〇cm 膝幅 一〇〇cm

三

以上 記述한 石造佛諸像은 新羅統一期의 造像樣式으로 九世紀를 不下할 것으로 推定된다. 特히 ① 光背、臺座가 具存하는 石造如來坐像이 主尊像이라 하면 石造立像은 그 脇侍像으로 三尊佛이 짐작되며 ② 또 이 三尊像을 爲하여 仁王像과 四天王像이 配置되었음을 알 수 있겠으며 ③ 그리고 이들 石像背石等에는 方穴·圓孔이 있어 過去의 架構痕跡이 엿보이는 바 이에 新羅時代의 石窟寺院 經宮이 推定된다.

〔註〕 破壤된 石塔一基가 있는데 곧 屋蓋石 五個가 殘存하는 것으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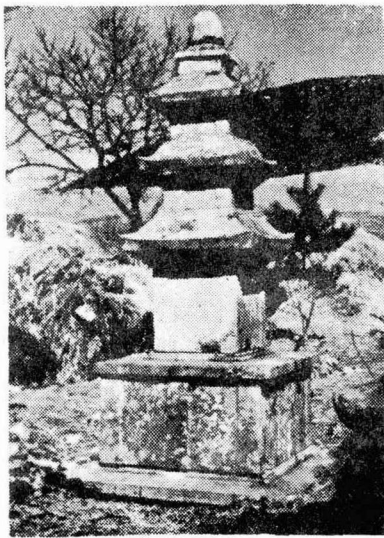
屋蓋石의 下部와 上部에 層節表示가 있어 模塼石塔이 推定되고 있다.

靈光 新川里의 三層石塔

鄭 永 鎬

全南靈光郡敵良面新川里의 「태절골」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羅代의 三層石塔一基가 遺存한다. 이 一帶는 寺址로서 周圍밭에는 瓦片이 散在하며 民家가 數戶있는데 石塔外에 石燈一基와 浮屠二基가 한곳에 있어 함께 調査되었다. 이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①와 「東國輿地勝覽」②等에 보이는 바 兩記錄에서 볼때 이 곳은 利興寺址이며 李朝 中葉까지는 存續되었었던 寺刹로 推定된다. ③

總高約 四m의 新羅式一般型의 石塔으로서 二層基壇인데 現在는 下層基壇이 埋沒되어 있어 遺憾이다——이 곳 踏查時에는 一面만을 파서 調査하였음——下基面石에는 撐柱가 二柱있고 二枚石으로 된 下基甲石上面에는 「물당」과 角形받침이 彫出되어 上層基壇을 받고 있다. 上基面石에는 中央에 撐柱가 一柱있으며 一枚石으로 된 甲石에는 副像이 있고 上面에는 「물당」과 角形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는 데 그 手法이 整然하다. 各層 屋身은 모두 一石으로 兩隅柱가 있으며 屋蓋石은 받침이 四段式이고 上面의 二段角形받침으로 뒷層의 屋身을 받고 있



다. 屋蓋落水面과 轉角의 返轉等이 新羅統一期의 定型的인 樣式에서 若干 벗어나 下代로 내려오는 手法임에서 注目되었다. 三層屋蓋石위의 露盤은 別石으로 되었고 그 위 蓮瓣石에는 徑四·五cm의 擦柱圓孔(深約三五cm)이 있으며 그 위에 寶珠가 놓여 있는데 相輪部에 缺失이 있는 듯하다. 現在 二層屋蓋에 若干의 破痕이 있을뿐 各部分가 完全하다.

實測值는(cm): 下基 高十八甲石長一七一、上基 高五九三甲石長一二九

屋身 高 및 幅 隅柱幅 屋蓋石長 露盤一邊長 三七

一層 六一 六三·五 十二 一〇一 高一七·五

二層 一七·五 五一 八二 寶珠高三〇이다

三層 一四·五 四四·五 九·五 七六

各屋身과 屋蓋의 手法으로 보아 長興寶林寺의 東西塔과 같은 系列에 屬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點에서 年代는 九世紀末의 優作이라 할 것이다.

石塔 앞에는 磨損이 甚한 石燈一基와 圓堂形의 浮屠二基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原位置가 아니다. 現在 石燈은 完全品이 아니며 八角竿柱의 半以下가 埋沒되어 있어서 下臺石을 알 수 없다. 中臺石은 圓形의 仰蓮石으로 削입없이 八角火舍石을 받고 있으며(窓口는 四處) 八角屋蓋石위의 相輪은 缺損되어 있다. 蓮瓣이나 各部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代로 推定된다(實測值는(cm): 現高 一六五 火舍石 高四七一 一邊長 一八 屋蓋 一邊長 三四 厚 三二). 二基의 浮屠는 李朝時代로 推定된다.

앞으로 이 곳의 再調가 있어 埋沒部分을 發掘調査하여 이 地方 唯一의 貴重한 羅代石塔으로서 保護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調査를 配慮해주신 南洲李弘植教授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註

- ① 「利興寺址」云フ、石燈一基(高サ六尺) ト五重塔一基アリ 高サ一丈五尺 完全ナリ 尙浮屠塔二基アリ 高サ八尺 乃至六尺何レモ 完全ナリ 라이다.
- ② 卷之三 十六靈光佛宇條에 「利興寺在佛德山」이라 있다.
- ③ 調査資料에 보이는 「利興寺」는 輿地勝覽의 「利興寺」와 同一寺刹로서 輿地勝覽이 集成될 때 까지도 殘存하였을 것이다. 또 現地에서 李朝代의 瓦片이 많이 蒐集되며 現存浮屠二基가 李朝時代의 것으로

推定된다.

資料

念佛庵上樑文

鄭 明 鎬

一九六三年 陰曆 三月初부터 四月初旬까지 補修한 바 上樑文은 三月二十日頃 宗梁에서 發見되었으 며 同時에 常平通寶三個가 함께 나왔다고 함, (主管 僧李慧連)

가로 八cm 세로 四九·五cm 字크기 一cm(本文) 小文字 〇·五cm

장지 二枚로서 接하였던 것이나 現在分離

樑間錄

庵之初菴不知在於何代而得樑間小書云庵之菴在唐文宗太和年間其尾書八百六十有二年仍取史考之不無疑焉唐太和計千一百有六十年言麗太祖朝初計九百二十有一年言齊武帝永明十一年寺菴計千四百有五十二年礎此可知庵在寺菴後三百四十有二年之「高麗初矣故聞普照公芟除荆棘立此菴也未聞公前有何如大德之菴立然則在唐之說恐或在宋之誤耶大明正統三年涇湖元義重菴之粵百二十三年嘉靖四十年熙尙仁隱「重菴之粵二百八年 大清乾隆三十三年戊子桐谷戒箴志一開有重菴之粵七十三年道光二十」有一年辛丑兩運晚慧重菴之論之四百四年之間重菴爲四不知初菴以來其間幾經重修矣」吁興亡相繼盛衰屢尋今其時裁今其時裁作六偉文贊揚勞心者之功德且示來後而此非古」道若上唐突下筆無大導師法殿敢 昔人之所未無知妄作之罪有不可勝贖矣餘」讀鄭摸溪墳叟文集有云穆鈕夫干之廟敢用此禮無乃不可乎信矣故計其年數藏樑間考諸後爾 道光二十一年辛丑七月十六日書

大施主

敬濟正基 武謙 本色郭宗林主 柴谷柳春逢兩主 戒宥 尙暉 快軒 普運奉 王 退隱藏禪 兩運晚慧 正有 尙樞 幻曄 知殿進海永修 義月大順 尙樞 典